https://doi.org/10.36034/yncdoi.2023..85.155

16세기 진주 덕천강 유역 사족의 川防 개발에 대한 연구*

박 용 국**

Ⅰ. 머리말
Ⅱ. 천방 개발의 제요인과 주도 사족
1. 지리적 조건과 지역적 요인
2. 趙瑆과 金澄·李濟臣의 성격
Ⅲ. 천방의 축조 과정과 관개지의 里坊
1. 明月巖川防과 원당리
2. 德川梁川防과 백곡리
Ⅳ. 맺음말

국문초록

明月巖川防과 德川梁川防은 16세기 초·중반에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관개를 많이 할 수 있는 덕천강의 여울에 개발된 洑였다. 그리고 趙瑆(?~1534)이 명월암천방을 개발할 수 있었던 지역적 배경으로는 15세기 초반의 남강 방천 축조와 水車의 제조·보급, 15세기 중반의 대규모 제언 축조 및 강숙경의 천방 개발의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452).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parkyg0648@naver.com

조정·金澄(?~?)·李濟臣(1510~1582)은 덕천강의 천방 개발과 증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조정은 趙之瑞의 장자이며, 曺植의 아버지 曺彦亨과 고종사촌간이다. 조정의 장자 趙得璜의 妻와 김징은 재종간이다. 김징과 金湛 형제는 조식의 문인 이제신과 교유가 있었다. 이처럼 조정과 김징 및 이제신은 경상우도의 유력한 사족의 일원으로서 혼맥과 학맥을 통해 직·간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덕천강의 천방 개발과 증축을 가능하게 했던 지식과 정보의 유통망 구실을 하였던 셈이다.

조정은 桐谷里 三壯洞에서 元堂里 元堂村으로 이주한 이후인 1510년 무렵에 원당촌의 저평지를 개간하여 경제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덕천강의 천방 개발에 나섰다. 조정은 먼저 덕천강의 河蝕崖인 明月庵을 따라 굴착하여 길이 600m의 開渠를 만든 후 다회탄을 막아 作洑하였다. 그 개거는 천방의 수문에서 약 3km 지점의 水桶목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원당들의 관개수 공급에 쓰였다. 그 천방의 개발은 저평지 원당들의 개간과 수전농업 발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관개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1백섬지기에 이르렀다. 천방 개발로 인해 원당리에는 사족의 번성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자연촌의 형성 등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덕천량천방은 1540년대 김징에 의해 개발되었다. 김징은 中太洞으로부터 金伊灣坪까지 덕천강 남안의 산기슭을 굴착하여 개거를 만들었다. 그 개거의 길이가 10餘里이었던 만큼 천방을 높이 쌓지 않고도 금이만평에 관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뒤에 그 천방은 이제신에 의해 증축되었으나 急水로 인해 파괴되었다. 따라서 백곡리 금이만평의 저평지에는 하천 관개수에 의한 수전농업의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배후 산지의 곡간수를 이용한 수전 농법이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 주제어
진주, 덕천강, 사족, 천방, 명월암천방, 덕천량천방, 조정, 김징, 이제신, 원당리, 백곡리

Ⅰ. 머리말

16세기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川防[洑] 개발의 성과는 한국의 벼농사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수리 수단의 개발로 수리의 안전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앙법 보급의 기초가 마련되었다.[1] 한편으로 수전농업의 발달로 인한 경상도의 위상 변화를 선산과 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전시기 수전농업의 발달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점도 주목된다.[2] 이와 같이 천방[洑] 개발에 의한 수전농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사회 변화 양상은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시대적 연구 못지않게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연구가 절실하다. 진주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16세기 중엽까지 26곳의 천방이 개발된 진주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그러한 발전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 川防[洑]과 관련해서 『晋陽誌』(1632)만한 가치를 지닌 읍지는 거의 없다. 그 灌漑條에 언급된 25곳의 천방과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는 『진양지』 古跡條의 德川梁川防 1곳을 더하면 모두 26곳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고, 그 내용도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明月巖川防과 덕천량천방의 자료에는 그 개발과 축조를 주도한 사족만이 아니라 축조 과정과 開渠의 규모에 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두 천방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초·중반에 개발된 진주목 서면 덕천강 유역의 천방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는 그 개발을 주도한 趙瑾이 지방의 한 지식인으로서 지방민의 이익을 위해 천방 축조에 앞장섰다면서 16세기 천방 개발의 한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3] 하지만 조정의 삶을

1) 李泰鎭, 「15·16세기 新儒學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80쪽.
2)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참조.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동기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으며, 그 구체적 시기에 대한 규명도 없었다. 또한 26곳의 천방 중에 어느 한 곳도 그 개거의 위치나 관개지 등의 개략적인 언급조차 없었다.[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진주목 서면 덕천강 유역의 천방 개발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선행 연구 성과의 오류를 시정하고 보완하려고 한다.

첫째, 덕천강 천방의 입지와 조건 및 그 개발의 지역적 배경을 검토하겠다. 명월암천방과 덕천량천방이 大川에서도 여울에 축조된 지리적 조건의 문제와 그 개발의 지역적 요인을 규명하고, 두 천방의 개발을 주도한 조정(?~1534)·金澄(?~?)·李濟臣(1510~1582)의 혼맥과 학맥 등 그들의 네트워크의 검토를 통해 그들의 성격 등 그 개발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두 천방의 축조 시기와 과정·개거의 규모 및 관개지 里坊의 실태를 규명하겠다. 조정이 동곡리에서 원당리로 이주한 계기, 1510년 무렵에 명월암 開渠로 시작되어 多會灘에 보를 쌓았던 과정, 그 관개지의 위치와 면적 및 리방의 변화를 검토하겠다. 셋째, 덕천량천방의 자료를 소개하고, 그 최초 개발의 시기와 증축의 시기 및 개거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선 중기 이후 백곡리의 변화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진양지』 등 사찬 읍지,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海東地圖』·『輿地圖書』·『慶尙道邑誌』 등의 관찬 지리지나 읍지류, 『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 등 조선 초기 실록, 『南冥集』·『陶丘實記』·『大瑕齋實記』·『鳳岡集』 등 문집류, 『柏谷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등 마을과 지명 관련 자료류, 『朝鮮地形圖』 등의 지도류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겠다.

3) 李泰鎭, 「16세기 천방川防(洑)관개의 발달」, 『증보판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256~257쪽.

4) 이는 필자가 2020년 5월 이 과제의 연구계획서에서 덕천량천방의 자료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천방 개발의 제요인과 주도 사족

1. 지리적 조건과 지역적 요인

먼저 덕천강의 두 천방의 지리적 위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明月巖川防과 德川梁川防[5]이 개발된 덕천강은 진주목 읍치의 서북 방향에 있는 남강의 지류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진주목 大川條에서는 남강의 수원이 둘인데, 하나는 지리산의 북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리산 남쪽에서 나와 주의 서쪽에서 합류하여 주의 동남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다.

덕천강은 지리산의 주봉 동남쪽의 矢川川과 동쪽의 덕천강이 덕천서원 동쪽 250m 지점에서 합류하여 형성된 남강의 지류이다. 그 지역은 남강의 유역 가운데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덕천강은 그 합류 지점에서 남동 방향으로 1.5km 정도 흘러 薩川部曲 지역의 水口에 이른다. 이곳은 덕천강의 한 여울이며, 德川梁川防이 축조된 곳이다. 이곳으로부터 덕천강의 북안을 따라 德川遷이라는 棧道가 개설되어 살천부곡에서 진주 읍치로 왕래할 수 있었다. 덕천강은 덕천량에서 3km 정도 동류하다가 金伊彎坪의 북쪽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남류하여 약 8.9km 지점의 칠송정에 이르고, 다시 동남 방향으로 3.2km 흘러서 多會灘을 형성하였다. 이 지점에서 명월암천방이 축조되었다.

그런데 덕천강은 大川이므로 천방 개발에서 결코 유리한 곳이 아니었다. 磵松 趙任道(1585~1664)는 지금의 함안군 가야읍 黔巖里 상검마을 지점의 함안천을 대천이라고 했다.[6] 또한 述菴 金學洙(1891~1975)는 『述菴遺集』을 전할 정도로 평생 한학을 손에 놓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산청군 신등면 可述里 가림마을 지점의 신등천이 대천이므로 왕래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7] 가림마을 지점의 신등천 강폭은 덕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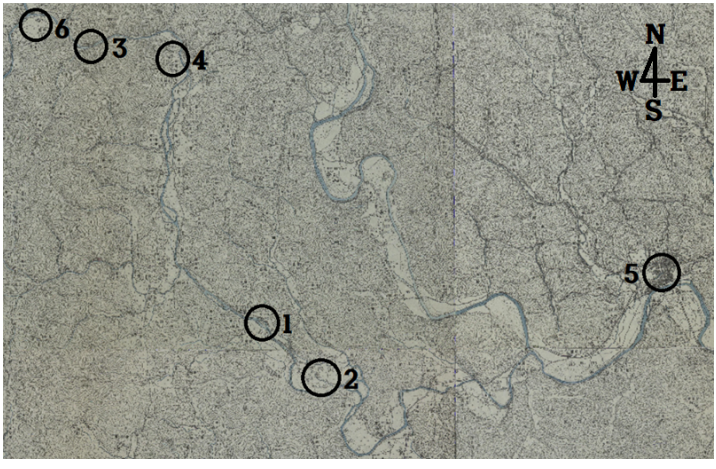
5) 덕천량천방은 '梁' 자체가 둑, 제방의 뜻도 있으므로 굳이 천방을 붙일 필요 없이 덕천량이라도 칭해도 되지만 다른 천방의 호칭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덕천량천방이라고 칭하겠다.

6) 『金羅傳信錄』 上, <玉浦萬戶李公事蹟>.

지점의 덕천강 너비에 비해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상검마을 지점의 함안천 강폭은 신등천의 너비에 비해 대략 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덕천강의 덕천량천방과 그 하류의 명월암천방의 축조에는 상당한 수리 기술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덕천량과 다회탄은 대천인 덕천강의 여울이었으므로 그 하천수를 관개수로 활용하기 위한 천방 축조의 여러 조건 가운데 노동력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지도 1>은 1916년(단성)과 1917년(진주와 진교)에 측도한『조선지형도』상에 명월암천방과 덕천량천방의 위치 등을 표기한 것이다.

<지도 1> 명월암천방과 덕천량천방의 위치



1. 명월암천방	2. 원당들	3. 덕천량천방
4. 금이만평	5. 진주 읍치	6. 살천부곡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천방의 지리적 입지는 黃海道箭灘川防巡察使 鄭

7)『述菴遺集』卷2,「詩」, <可林村前有大川 往來甚不便 本倅李仁鎬 實心周旋 作成鐵橋 喜頌其惠四絶>.

蘭宗이 둑을 쌓은 상황을 書啓한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箭灘'이라는 여울이 천방 입지로서 적합한 곳으로 선택되었다.[8] 덕천강의 다회탄과 덕천량 지점은 전탄과 마찬가지로 덕천강의 여울로서 수량도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천방의 입지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또한 세조가 경상도관찰사와 충청도관찰사에게 내린 교지에서도 그 지리적 입지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1458년 9월 세조는 승정부를 통해 경상도관찰사에게 "金山郡 金泉驛 앞들과 高靈客舍 앞들, 상주 所火灘 등은 내의 물을 막는 데 功力은 적게 들고 灌溉를 많이 할 수 있으니, 경은 그것을 措置하라."고 했으며, 충청도관찰사에게도 "忠州客舍 앞들의 川防은 力役이 적게 들고 灌溉를 많이 할 수 있으니, 경은 그 조치를 하라."고 교지를 내렸다.[9]

한편 천방 축조의 지리적 입지는 관개 지역과 고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유리했다. 천방은 기본적으로 하천의 낙차를 이용한 관개 방법이기 때문이다.[10] 특히 더 많은 봇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방의 축조만으로 부족하고 兩岸의 방천이 필요했다. 따라서 천방은 하천의 流路를 일정하게 고정하고, 적은 경비를 들여 봇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에 축조되었다. 여울은 하천이 兩岸, 또는 한 편에 산기슭을 끼고 흐르는 곳이 많았으므로 가장 적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천방을 축조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갖춘 곳이었다.

요컨대 덕천강의 명월암천방과 덕천량천방은 여울[灘] 지점에 개발된 洑였다. 덕천강의 다회탄과 덕천량 지점은 적은 노동력으로써 천방을 축조하여 관개를 많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리적 입지였다. 그러면 조정의 천방 개발의 지역적 배경을 살펴보자.

15세기 초반 남강의 방천을 축조한 역사적 경험은 천방 개발의 지역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진주는 1413년 2월 진주지역 父老들이 건의하여 남강의 방천을 수

8)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19일(경신).
9)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12일(병신) ; 세조 4년 9월 17일(신축).
10) 『林園十六志』 本利志1, 田制 <洑田>, 참고.

축함으로써 田里의 여러 해 근심거리를 제거하였던 지역이었다. 비록 목사 權衷과 判官 朴絜이 주도했지만 부로들은 그 축조를 건의하고 실현시킨 주체였다. 왜냐하면 남강에 防川을 쌓고 촉석루 중건을 주도한 세력은 태종의 큰 총애를 받고 있던 당대 최고 권력자 호정 하륜(1347~1416)의 지시를 받든 부로였기 때문이다. 이 役事는 방천 축조를 통한 농지 개간과 무관하지 않았다.[11]

남강의 방천 축조의 경험과 수리 기술들은 15세기 중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개 면적 97결의 今山池[12]를 축조하는 데에 직·간접의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관개 면적 60결 이상을 大堤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13] 그렇다면 진주목 동면 琴山里 소재의 금산지는 大堤에 속하는 堤堰이다.[14] 이는 금산지를 축조할 만큼 진주지역에 수리 기술이 축적되고 전해졌을 것임을 의미한다.

여말선초 수차 보급의 노력은 진주지역 수전농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1362년 백문보가 농상을 권장하는 차자를 올려 수차의 이용을 건의하였다.[15] 이는 고려 말기 밭농사에 비해 논농사의 비중을 더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16] 1406년 12월 조선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차의 보급 문제가 다시 전면적으로 거론되었다.[17] 수차 보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실제 진주지역에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1413년 촉석루 중건을 주도한 부로들은 진주지역 수차의 제조와 보급을 통해 논농사의 발전을 기도하였던

11) 박용국, 「고려말·조선초 진주지역 '父老'의 존재와 성격」, 『영남학』 7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참조.
12) 『慶尙道續撰地理誌』, 晉州道 晉州牧 <堤堰>.
13) 李泰鎭, 「16세기 천방川防(洑)관개의 발달」, 『증보판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247쪽.
14) 금산지는 제언의 길이가 840m, 그 높이가 10m가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주시 금산면의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주요한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15) 『고려사』 권79, 食貨志 農桑條.
16) 李泰鎭, 「14·15세기 農業技術의 발달과 新興士族」, 『東洋學』 9, 1979(『증보판 한국사회사』, 지식산업사, 2008, 소수, 403쪽).
17)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을사).

것이다. 비록 수차의 제조·보급이 진주목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보급의 실질적 주체는 남강의 방천 축조나 촉석루 중건과 마찬가지로 부로들이었다.[18]

요컨대 호정 하륜의 후원을 받은 부로들이 주도한 방천 축조를 통한 농지 개간은 1413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른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지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초 수차 보급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역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1413년 진주지역의 수차 제조와 보급은 천방 개발을 통한 수전농업 진전의 배경으로 주목해야 할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457년(세조 3) 12월 堤堰敬差官 姜叔卿(1428~1481)은 事目에서 "防川의 이익은 제언보다 배가 됩니다. 지형의 고하에 따라 굽혀서 堤坊을 만들면 그 이용도가 무궁합니다."라고 하였다.[19] 강숙경의 형은 영의정에 오른 姜孟卿(1410~1461)이다. 이러한 강숙경의 천방 개발의 지식이 지역에 널리 퍼져갔으며, 지역의 역사적 경험으로 남았을 것이다. 恭穆公 姜蓍(1339~1400)의 증손이자 姜淮伯의 손자인 강맹경과 강숙경 형제는 진주 동면 동산리에서 강회백의 둘째 아들 知昌寧縣事 姜友德(1385~1439)과 載寧李氏 知甫州事 李惠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덕천량천방을 개발한 三淸堂 金澄(?~?)은 강회백의 외5대손이지만 동산리 진양강씨 가문과 혼맥으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를 여전히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강숙경이 주장한 천방 개발의 내용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진주지역 사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2. 趙瑆과 金澄·李濟臣의 성격

16세기 덕천강의 천방 개발을 주도한 조정·김징·이제신의 네트워크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8) 박용국, 「고려말·조선초 진주지역 '父老'의 존재와 성격」, 『영남학』 7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280쪽.
19) 『세조실록』 권10, 세조 3년 12월 17일(정미).

먼저 조정 가문의 동곡리 입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주목 서면 桐谷里 임천조씨 가문은 조선 중기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사림파 가문에 속했다. 동곡리 임천조씨 가문은 趙天赫을 시조로 하여 6세 門下祗候 趙淳을 파조로 한 紙候公派에 속한다.[20] 임천조씨 가문의 동곡리 입향조는 조정의 증조부이자 知足堂 趙之瑞(1454~1504) 조부인 司醞署直長 趙敏原이다. 조민원은 진양강씨 처향 진주목 서면 동곡리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조민원의 처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조민원의 조부이자 파조 조순의 아들인 趙石堅(?~1347)은 충목왕대에 종2품 密直司使로서 재상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인데, 동곡리 임천조씨 가문의 현조이다.[21]

조민원의 아들 趙瓚은 1453년 2월에 진사시 2등 제24인에 급제하고, 4월 증광시 정과 19인에 급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가 典籍과 兵曹佐郎을 거쳐 종3품 하계인 中訓大夫 司憲府監察을 지냈으며, 중종반정으로 아들 조지서가 신원되면서 종3품 상계인 中直大夫 司憲府執義에 추증되었다. 조찬은 진양정씨 생원 鄭參의 딸 사이에 아들 조지서와 사위 曺永을 두었다. 조영은 남명 조식의 조부이다.[22]

조지서는 자가 伯符, 호가 知足亭, 또는 忠軒이며, 1474년(성종 5) 생원시에 장원하고, 진사시에 2등으로 급제하여 문과 병과에 급제했다. 그는 承文院正字로 있던 1479년(성종 10) 中試에 1등으로 급제하여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그는 홍문관의 교리와 응교를 거쳐 侍講院弼善을 지내고 정3품 侍講院輔德으로 있을 때 연산군의 스승이 되었다가 창원부사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1495년(연산군 1)에 물러나 귀향하였다. 그는

---

20)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21)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七世趙石堅> ;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4년 춘정월조 ; 『고려사』 권124, 열전 康允忠傳 ; 『고려사』 권76, 百官志 密直司條. '故密直' 조석견의 부인이 1348년(충목왕 4) 1월에 服喪 중이었다(『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4년 춘정월조). 그렇다면 그는 1347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22)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4월 15일(임인) ; 『진양지』 권4, <文科> ;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世趙瓚> ; 『南冥集』 卷2, 「墓誌」,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趙公墓銘>.

1504년 갑자사화 때 棄市의 형을 당하고, 그 가문의 가산도 적몰되었다. 장자 조정도 모진 고문 끝에 남해로 유배되었다.[23]

조지서는 수양과 실천에서 당대 사림세력의 추앙을 받았다. 남명 조식은 조지서를 일러 “한평생 옛사람의 글을 읽고는 세도를 부지하고 人紀를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삼았다. 士林들이 그를 영수로 받들었다.”라고 했다.[24] 이는 임금에게조차 스스럼없이 직언하던 조식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결코 윤색이나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요컨대 조지서는 조식을 비롯한 16세기 이후 진주지역의 사림세력에게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자가 조정이다.

조지서의 前配는 海州鄭氏 左軍司正 鄭保民의 딸이다.[25] 조지서는 정보민의 딸 사이에 아들 조정과 두 딸을 두었다. 조정의 두 姊兄은 참봉 盧淑弼과 鄭準이다. 조지서는 繼配인 延日鄭氏 贈形曹參議 鄭允寬의 딸 사이에 두 아들 趙琛과 趙理을 두었다. 조지서가 죽임을 당했을 때 조침은 襁褓에 싸여 있었으며, 조리는 腹中의 아기였다. 정윤관은 雪谷 鄭保의 아들이며, 포은 정몽주의 증손이다.[26]

조정은 조식의 아버지 曺彦亨(1469~1526)과 고종사촌간이다.[27] 조정은 泗川李氏 訓導 李興宗의 딸 사이에 세 아들 趙得璜(1500~1545)·趙得瑞(?~1533)·趙得瑜를 두었다. 조정의 처부 이흥종은 龜巖 李楨(1512~1571)의 조부와 재종간이다.[28]

---

23)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二世趙珵> ; 『南冥集』 卷2, 「墓誌」,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趙公墓銘>.

24) 『南冥集(丁酉本)』, 「雜著」, <知足堂趙公遺事>.

25) 趙珵(?~1534)의 외조부의 관향과 이름은 남명 조식이 지은 지족당 조지서의 묘명에 언급이 없었으나 分衿文券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전한다.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一世趙之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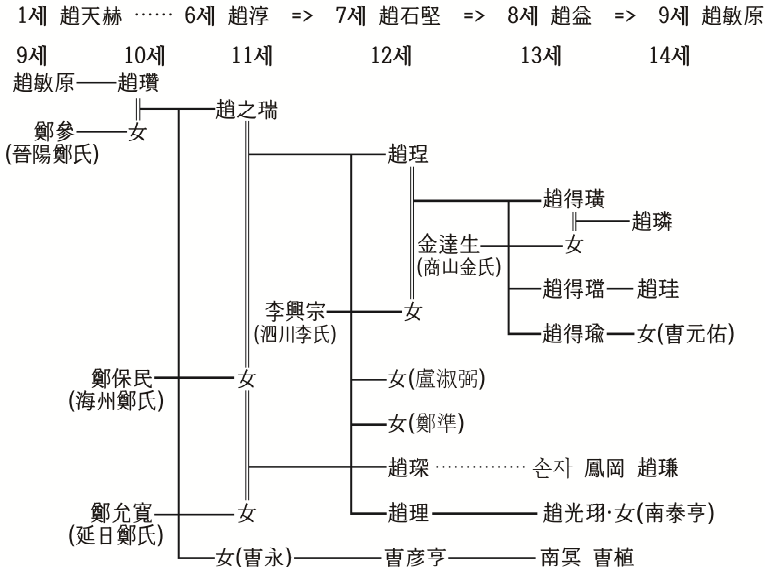
26)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二世趙珵> ; 『南冥集』 卷2, 「墓誌」,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趙公墓銘>. 정보는 단종 때 집권자 한명회를 萬世罪人이라고 비난하였다가 유배에 처해지고, 연일에서 단성으로 移配되었다가 그대로 눌러 살았다. 박용국, 『지리산 단속사』, 보고사, 2010, 36~38쪽.

27) 『林川趙氏世譜』, <十二世趙珵> ; <知足堂趙公遺事>.

28) 『林川趙氏世譜』 ; 『泗川李氏文集』, 「行狀」, <參奉公> ; 『泗川李氏文集』, <派圖>. 15

다음 <가계도 1>은 조정을 중심으로 한 임천조씨 지후공파 가계도이다.[29]

<가계도 1> 임천조씨 지후공파 조정의 가계



진주 동곡리 임천조씨 가문은 조정의 장자 조득황이 단성현 법물리의 상산김씨 金達生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법물리의 상산김씨 가문만이 아니라 진양강씨 강회백 후손 가문과도 혼맥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다. 조득황은 강회백의 사위 金張의 현손서이자 강회백의 외5대손서이다.[30] 후술하듯이 조정의 장자 조득황의 妻는 덕천량천방을

36년(중종 31) 별시 문과에 장원 급제한 이정은 순천부사·경주부윤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리학 보급과 학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으며, 경상우도 인적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다.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二世趙珥> ; 『龜巖集』 卷2, 「附錄」, <行狀[鄭斗]> ; 『記言別集』 卷25, 丘墓文 <龜巖李先生碣銘>.

29) 『林川趙氏世譜』 ; 『南冥集』 卷2, 「墓誌」,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趙公墓銘>.

처음 개발한 생원 김징과 재종간이다.[31] 조정의 셋째 아들 조득유의 사위 曺元佑는 진주목 서면 동곡리·원당리 일원의 창녕조씨 입향조로서 조지서의 묘비를 세우거나 현양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32]

1504년 갑자사화 당시 조지서의 장자 조정은 두 번의 심문을 받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남해로 유배되었다. 조정은 중종반정 후 유배에서 풀리고 軍資監參奉의 벼슬을 제수 받아 벼슬길에 나아갔다. 하지만 조정은 벼슬살이에 뜻이 없어 1년 만에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삼장동으로 돌아온 조정은 집이 무너지고 동산이 황폐해져서 차마 修治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조정은 원당리로 옮겨갔는데, 이는 후술하듯이 명월암천방 축조에 나서게 되는 계기였다.

다음으로 덕천량천방을 처음으로 개발한 김징과 그것을 증축한 陶丘 李濟臣(1510~1582)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사회적 성격을 살펴보겠다.

김징은 진주목 서면 沙月里 출신 진양강씨 통정공 姜淮伯(1357~1402)의 외5대손이다. 김징은 1480년 '金光礪·韓健의 妻·金光範 삼남매 和會文記'의 인물 가운데 김광범의 장손자이며, 조득황은 김광려의 孫壻이다.[33] 김광려의 외아들 金達生은 아들 없이 사위 조득황만을 두었다. 결국 조달생은 從弟 治田堂 金益敦의 다섯 아들 가운데 막내인 三足齋 金浚를 후사로 삼았다. 김광범의 장자 遠復齋 金守敦의 세 아들 삼청당 김징·汲古齋 金湛(1500~1566)·三休堂 金濂, 김광범의 차자 치전당 김익돈의 다섯 아들 三梅堂 金濬·訥敏齋 金灠[金濫]·晩覺齋 金濡·養閒齋 金

30) 『大瑕齋實記』, <世系圖> ; 『陽村集』 卷39, 「墓誌類」, <有明朝鮮國贈謚恭穆姜公墓誌銘 幷序> ; 『私淑齋集』 卷7, 「行狀」, <先祖考正憲大夫東北面都巡問使通亭先生姜公行狀>.

31) 『林川趙氏世譜』, <十三世趙得璜> ; 『白軒集』, <掌樂正趙公墓碣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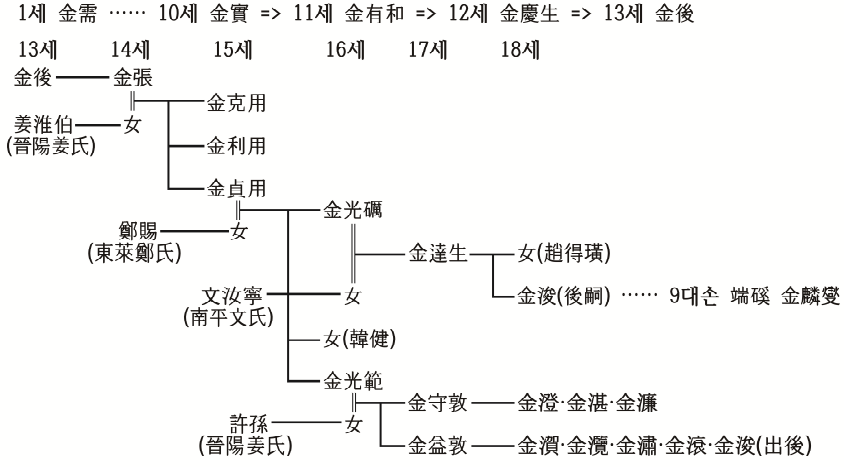
32) 『南冥集』 卷2, 「墓誌」,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趙公墓銘>.

33) <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국립진주박물관) ; 『大瑕齋實記』, <世系圖> ; 『私淑齋集』 卷7, 「行狀」, <先祖考正憲大夫東北面都巡問使通亭先生姜公行狀> ; 『晩求集』 卷14, 「墓碣銘」, <獻納文公墓碣銘> ; 『端磎集』 卷14, 「行狀」, <先府君行狀草> ; 박용국, 「산청 단계리의 역사 변천과 의미」, 『남명학』 4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5, 33~34쪽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滾·삼족재 김준 등 여덟 명의 종형제를 당시 '金氏八君子'라고 부를 정도로 김징 가문의 族勢가 번창하였다. 그들은 경상우도 유력 사족의 일원이었다.[34]

다음 <가계도 2>는 김징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35]

<가계도 2> 법물리 상산김씨 김징의 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득황의 처는 덕천량천방을 처음 개발한 김징과 재종간이다. 따라서 덕천강의 두 천방을 개발한 조정과 김징은 직접적인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과 덕천량천방을 증축한 이제신은 활동 연대를 고려할 때 그들이 직접 교유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그들 간에는 남명 조식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식은 16세기 후반 이후 경상우도의 정보와 지식의 중심 네트워크를

34) 『丹城鄕案』; 『丹城蓮桂案』; 『丹邱姓苑』, 참고.
35) 『大瑕齋實記』, <世系圖>; 『陽村集』 卷39, 「墓誌類」, <有明朝鮮國贈謚恭穆姜公墓誌銘 幷序>

형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배움을 청한 제자들을 진작시켰으며, 그의 문인들이 남명학파를 형성했다. 따라서 이제신은 스승 조식의 외당숙 조정과 스승의 외재종형인 조득황의 가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조정이 명월암천방 개발을 주도한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김징이 처음으로 덕천량천방을 개발하고 이제신이 그것을 증축하는 데에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징의 아우 汲古齋 金湛(1500~1566)은 조식과 교유했다. 大瑕齋 金景謹(1559~1597)은 급고재 김담의 행장에서 김담과 조식이 종유하고 벗으로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김담은 이제신이 남명의 문하에 있을 때 그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김담이 의령의 闍崛山을 유람하던 길에 이제신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36] 이를 통해 미루어 보면 삼청당 김징과 이제신이 교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제신은 스승 조식을 따라 1560년 직후 의령현 신반에서 덕산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백곡리 금이만평의 건너편 陶丘臺에 집을 짓고 정착하였던 인물이다.[37] 그러므로 이제신은 김징이 덕천량천방을 개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생원 김징이 덕천량천방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뒤에 가서 이제신이 그것을 증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신이 도구대에 완전히 정착한 시기는 아마도 스승 조식이 돌아간 1572년 이후일 것이며, 이때로부터 멀지 않은 1570년대 중반 무렵에 덕천량천방을 증축했을 것이다.

요컨대 조정과 김징 및 이제신은 경상우도의 유력한 사족의 일원으로서 혼맥과 학맥을 통해 직·간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조정에 의한 명월암천방 개발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망 구실을 하여 김징에 의한 덕천량천방의 개발과 이제신에 의한 그것의 증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

36) 『大瑕齋實記』 卷1, 「行狀」, <從叔父汲古齋先生行狀>.
37) 『陶丘實記』, <行錄[外孫田有龍高峯]> ; 『記言』, <陶丘公事>.

Ⅲ. 천방의 축조 과정과 관개지의 里坊

1. 明月巖川防과 원당리

태종대 이후 성종대까지 川防과 堤堰은 王政의 急務라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사였다.[38] 특히 성종이 지대한 관심을 끈 箭灘川防의 개발은 그 역사가 순조롭지 못하여 1485년(성종 16) 9월 22일자 史論에 나오듯이 실패를 겪기도 했다.[39] 천방 개발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1469년 편찬의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천방이 언급되지 않은 사실과 『경국대전』에도 천방 관련 규정이 없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천방 개발을 통한 농지 개간과 수전 개간의 정책들은 15세기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수전 농법이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40] 덕천강의 천방 개발은 그러한 국가 정책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 개발을 주도한 조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월암천방은 천방이 축조된 곳의 지명을 따르지 않고 開渠의 지명인 명월암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아마도 명월암의 개거가 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진주지역의 나머지 천방 사례를 보면 천방은 천방이 설치된 곳의 지명을 따르거나 관개지의 지명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지어 붙이는 데에 어떠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월암천방은 元堂里에 있는데, 참봉 조정이 명월암을 뚫어 개거하고, 다회탄을 막아 作洑하여 개발되었다고 했다.[41] 조정은 1년의 짧은 벼슬

38)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을사) ;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8일(무신) ;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17일(정사) ; 『문종실록』 권6, 문종 1년 2월 7일(병자) ;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1월 18일(임자) ;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12일(병신) ;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17일(신축) ; 『세조실록』 권36, 세조 11년 5월 29일(을해) ; 『성종실록』 권212, 성종 19년 윤1월 10일(을해).

39) 『성종실록』 권183, 성종 16년 9월 22일(경오) ;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19일(경신).

40) 李泰鎭,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78~81쪽 참고.

살이를 그만두고 1508년 무렵에 삼장동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은 중종반정 이후 1507년 무렵에 군자감참봉에 제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정은 집이 무너지고 동산이 황폐해져서 차마 修治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조정은 원당리로 옮겨가 스스로 집을 짓고 愁灘[42]에 鑿洑하여 치수하는 등 농사의 방법에 힘썼다.[43] 그렇다면 조정이 덕천강의 천방 개발에 나선 동기는 1509년을 전후하여 동곡리 삼장동에서 원당리 원당촌으로 이주한 후 그 저평지를 개간하여 경제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즉 조정은 덕천강의 하천수를 관개수로 개발하여 원당촌의 저평지를 수전으로 개간하려는 목적에서 천방 축조에 나섰던 것이다.

조정은 천방 개발을 통해 원당리의 저평지를 개간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확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배경으로 조정은 다회탄 상류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덕천강 江心의 獨山에 七松亭을 지어 교유의 장소로 삼아 재지 기반을 擴張하였다.[44] 물론 조정의 천방 개발의 대외적 명분은 『진양지』의 관개조에 나오는 내용처럼 원당리 원당촌과 덕천강을 사이에 둔 이웃 곤명현 士民들의 農利에 기여하려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명월암천방 지역은 1936년 9월 대홍수로 인해 그 상류의 수곡장터 일원과 그 관개지 등지에 커다란 지형의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면 수곡장[무실장]의 대부분이 강바닥으로 변하였으며, 명월암천방의 원당들 내의 개거[봇도랑]의 서쪽 편도 덕천강의 지류로 바뀌었다. 따라서 1909년에 측도하고 1913년에 인쇄한 『조선지형도』(단성·곤양)·1916년과 1917년에 각각 측도하고 1918년에 인쇄한 『조선지형도』(단성·진교)가 그 지리적 조건과 개거·관개지 및 관련 리방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유용

41) 『진양지』 권2, <灌溉>.

42) 『진양지』 관개조와 『진주목읍지』 제언조에 의하면 다회탄의 착오이다. 수탄에 보가 축조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며, 『경상도읍지』(1832) 중의 『진주목읍지』에 의하면 명월보[명월암천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수탄보가 그 아래에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3) 『林川趙氏世譜』 卷1, 十五世事實 <十二世趙珵>.

44) 『진양지』 권2, 亭榭 <七松亭>.

할 것이다.[45]

<지도 2>는 앞의 『조선지형도』(단성·진교)에 명월암천방과 명월암 개거 및 관개지 원당들의 개략적인 이해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지도 2> 명월암천방과 개거 및 관개지(원당들)

1. 명월암천방	2. 명월암 개거	3. 수통목
4. 원당들 내의 개거	5. 원당들 내의 개거	6. 원당촌

명월암천방의 개발은 먼저 명월암이라는 덕천강의 동북쪽 천변의 벼랑을 따라 개거[봇도랑]를 개설하고 이어 다회탄을 막아 作洑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명월암천방은 水谷里 多會灘村과 北坪里 楸洞 사이를 흐르는 덕천강의 여울에 축조된 보이다. 다회탄은 河床이 일정하지 않은 여울이어서 동편의 다회탄촌 쪽이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고 수심이 얕고, 서편의 추동 쪽이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도 빠른 편이며, 중간이 다져진

45) 조선총독부 편, <丹城(順天一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3 ; 조선총독부 편, <昆陽(順天二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3 ; 조선총독부 편, <丹城(順天一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 조선총독부 편, <晉州(馬山十三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 조선총독부 편, <辰橋(順天二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이하 『조선지형도』는 각주를 생략하기로 하겠다.

자갈이 쌓여져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6] 그렇다면 방축의 높이는 수심에 따라 달리하더라도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다회탄촌 쪽으로 난 水門을 통해 관개수가 개거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을 것이다.

명월암천방은 나무 기둥을 강바닥에 직각으로 늘어세운 후 상류 쪽에 나무 기둥을 거의 45도에 가깝도록 비스듬하게 연결하여 천방의 얼개로 삼고, 여기에 섶을 덧댄 후에 비교적 큰 돌을 비스듬하게 쌓아올리고 자갈을 채우는 방식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47] 지금의 명월보 자리의 덕천강 너비가 220m에 약간 못 미치는데, 명월암천방 개발 당시 덕천강의 너비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명월보의 길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명월암천방의 수문은 후술하는 箭灘川防처럼 바닥에 넓은 돌을 깔았을 것이지만 그 너비는 추측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의 명월보는 수문으로부터 160m 정도까지 구간이 暗渠이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명월암천방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문으로부터 300m 지점의 봇도랑 수면 너비가 5~6m에 이르며, 그 하류로부터 명월암 지점까지 구간의 봇도랑 수면의 너비는 3~4m 정도이다. 한편 지금 명월암 부분의 봇도랑 가운데 약 315m 정도가 복개된 형태로 변형된 구간이므로 애초의 개거 너비를 추측할 여지가 전혀 없다. 다만 그 복개된 지점이 끝나는 부분의 봇도랑 수면의 너비는 1~2m 정도이다.[48]

명월암천방이 개발되었을 당시 수문으로부터 수통목까지 개거는 지금의 명월보 수문에 이어진 暗渠 구간을 제외한 봇도랑과 지형이나 위치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명월암의 개거'는 덕천강에 의해 형성된 약 800m의 명월암 河蝕崖 가운데 약 600m 정도가 가

46) 『松亭集』 卷5, 通文 <河氏族會通文> ; 『松亭續集』 卷3, 「附錄」, <年譜> ; 조선총독부 편, <丹城(順天一號)>, 『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47) 명월암천방의 축조 방식은 2023년 6월 22일에 신촌마을 거주 정희영(76세,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48) 2020년 5월 16일(토)과 2020년 12월 26일(토) 및 2022년 6월 22일(목)에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한 결과와 '다음'의 2014년 위성 지도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장 어려운 굴착 구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9] 그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사실과 앞의 『조선지형도』 지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월암천방은 물 흐름 방향의 왼쪽에 설치된 수문에서 관개지 입구인 修筒목까지 길이 약 3km 정도에 이르는 개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통목에서 개거가 두 줄기로 나누어져 한 개거는 산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약 420m 나아간 지점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약 100m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동쪽으로 돌아 고역동 앞의 수곡천으로 약 680m 가량 흘러가면서 원당들을 관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통목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개거는 지금의 덕천강 지류의 동쪽 편에서 거의 동남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원당들을 관개하고 덕천강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통목에서 갈라진 북쪽의 개거는 수문으로부터 총 길이가 약 4.2km에 이르고, 동남 방향의 개거는 수문으로부터 총 길이가 약 4.2km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조선 후기 기록이지만 봇도랑[開渠]이 관개지로부터 먼 것은 10餘里, 가까운 것은 數十百武였다.[50] 그렇다면 명월암천방의 개거는 먼 경우에 해당한다.

명월암천방의 축조를 위한 노동력 동원 방식은 1413년 2월 남강 방천을 수축했을 때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 방천 축조에 동원된 민들은 隊伍로 조직되었으며, 그 축조는 한 대오가 한 구역씩 맡아 쌓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1] 물론 그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15세기 중엽에 진주목 동면 琴山里의 今山堤堰과 같은 관개 면적 97결의 대규모의 저수지 축조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제언의 축조나 남강 방천의 수리 등을 통해 노동력 조직과 그 기술이 16세기 초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다.[52]

다음으로 명월암천방의 개발에 들어간 노동력을 당시 기록을 토대로

49) 하식애를 굴착하여 봇도랑으로 개설한 진주지역의 사례는 명월암천방 이외에 영천강의 毛淡川防과 君丁川防에서도 볼 수 있다. 『진양지』 권2, <관개>, 참조.
50) 『林園十六志』 本利志1, 田制 <沃田>.
51) 『東文選』 卷81, 「記」, <晋州矗石樓記[河崙]>.
52) 『慶尙道續撰地理誌』, 晉州道 晉州牧 <堤堰>, 참조.

대략 추정하였다. 箭灘川防에서 栗串築堤까지 길이가 布帛尺으로 18,328尺(약 8,551m), 너비 20척(약 9.33m)이었는데,[53] 한편 전탄천방의 개거 개설 1년 2개월 전인 1485년 9월에 그곳을 사전 조사한 兵曹正郎 朴文幹은 그 개거 개설에 1만 명이 두 달 동안 役事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54] 명월암천방의 개거 길이와 너비는 앞의 천방에 비해 대략 4분의 1정도의 규모였다. 그렇다면 명월암천방은 2천 5백 명의 인원이 두 달 동안 역사해야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원당리와 주변의 가호의 수를 고려할 때 도저히 동원할 수 없는 노동력이다. 아마도 박문간의 수치에는 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黃海道箭灘川防巡察使 鄭蘭宗은 포백척으로 전탄천방의 방죽 길이 356척(약 166.1m)·너비 57척(약 26.6m)·높이 6척 7寸(약 3.12m)·두 수문이 각각 너비 20척(약 9.33m), 兎川築堤의 길이 900척(약 420m)·너비 50척(약 23.33m)·높이 8척(약 3,73m)·한 개의 수문 너비 25척(약 11,66m), 栗串所濃浦築堤의 길이 80척(약 37.32m)·너비 40척(약 18.66m)·높이 5척(약 2.33m)에다가 앞의 전탄에서 율곶축제까지 개거의 役事까지 모두 합해서 1천명이 10여일이면 끝낼 역사라고 하였다.[55] 정난종이 말한 세 방죽과 하나의 개거는 적어도 명월암천방에 비해 5배가 넘는 규모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월암천방의 개발에는 연인원 2천여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명월암천방의 관개 면적은 추정할 근거조차 거의 전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도읍지』 내의 『진주목읍지』 제언조에는 “明月洑 蒙利畓 百石地只”라는 내용이 나온다.[56] 이처럼 18세기 말에 이르러 원당들은 1백섬지기의 수전농업 지역으로 진전되었다. 하지만 그 개발 당시에는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명월암천방이 개발됨으로써 저평지 원당들은 수전농업 지대로 전환되어 갔으며, 이로 인한 원당리의 사회 변화도

53)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19일(경신).
54) 『성종실록』 183, 성종 16년 9월 22일(경오).
55) 『성종실록』 권197, 성종 17년 11월 19일(경신).
56) 『慶尙道邑誌』, 『晉州牧邑誌』 堤堰 <明月洑>.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16세기 원당리의 사회 변화가 1632년에 편찬된『진양지』의 각리와 호구조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진양지』호구조에 의하면 원당리의 전답은 합해서 15結이고, 이 중 답은 10결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앞의 몽리답 100섬지기와 17세기 이후에 개발된 수탄보의 몽리답 20섬지기를 합한 수전의 면적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57]

명월암천방의 개발로 인한 사회 변화는 어떠했을까. 士民의 일상 생활 공간으로서 리방은 일정한 조건으로 인해 형성과 성장 및 쇠퇴 과정을 거쳤는데, 특히 그 주요한 요인으로는 농지 개간이나 농업생산력 및 군현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6세기 원당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관찰사가 읍내 및 사방 면에 대해 각각 등급을 나눈 결과를 검토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와 육조는 함께 의논하여 다시 왕에게 보고하여 수세했다.[58]『진양지』각리의 토지 肥瘠의 정도는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 진주 州內[邑內] 14개리는 토지가 肥饒하고 인물이 富庶하여 一道에서 제일이었으므로 옛날에 '士族多居'하고 '簪纓繼出'하였으나 17세기 초에는 없다고 했다. 진주목 읍내를 제외한 네 면 중에 원당리를 포함한 서면 지역의 토지가 가장 비옥했다.

원당리는 16세기 중엽 덕천강의 천방 개발을 통한 수전 농법으로 인해 농업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사족 이주와 자연촌의 형성 등 리방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을 것이다. 수전농업의 발전은 '원당리의 토지는 肥饒하고 수재와 한재가 없다'는『진양지』각리조의 사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당리는 하나의 자연촌 원당촌을 단위로 하여 수곡리의 일부 자연촌을 속방으로 거느린 리방이었을 것이다. 玉洞과 禿洞은 명월암천방의 개발에 따른 원당리의 저평지 개간과 수전농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크게 증가되면서 원당리 구역 내에서 새롭게 형성된 자연촌으로 생각된다.

57) 지면 관계상 이 문제는 현장 조사·연구를 통해 정리한 명월암천방의 구체적인 개거의 지형과 위치, 원당들의 저평지 개간 과정 등과 함께 추후 별고에서 검토하겠다.
58)『經國大典』卷2, 戶典 <收稅>.

그럼으로써 墨峴[勿峴, 무너미고개] 以下[원당리 쪽에서 보면 以上이어야 논리적 모순이 없음]는 처음 원당리의 속방이었으나 井谷村 이상은 뒤에 수곡리로 환속되었다.[59] 즉 원당리에 편제된 정곡촌 이상의 자연촌은 16세기 이후 농업생산의 증가로 인한 원당리의 성장으로 다시 수곡리의 속방으로 되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리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하나의 자연촌인 원당촌으로만 편제된 리방이 아니라 본방 원당촌과 속방 옥동·독동으로 편제된 지역촌이었다. 『진양지』 각리조를 보면 원당리는 본방인 원당촌이 생략된 채 속방인 옥동·독동 두 자연촌만으로 편제된 리방인 것처럼 나온다. 결국 원당리는 자연촌이 둘인 리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동곡리의 경우도 본방은 생략되었으나 본방인 동곡의 성장을 가늠하게 하는 外桐谷이 보인다. 이처럼 『진양지』 각리조의 각 리방의 속방으로 편제된 자연촌의 실태는 철저한 실증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원당리는 '自古士族多居 衣冠代出'[60]의 리방이었다. 이는 鮮初의 진주 류씨와 관련이 적지 않다. 이곳에 처음으로 터를 잡은 진주류씨 인물은 영해부사 柳蒔(1404~1469)이다. 류시의 아버지 承義副尉 司正 柳升潤(1379~1443)은 단계의 신등리 第四坊에 거주하였다. 류시의 조부 柳伯通(1361~1439)은 通政大夫 知平海郡事를 지냈다. 류시는 진주류씨 시조 晉康君 柳挺의 10세손으로 단계의 신등리에서 처향 원당촌으로 이거하였다.[61] 류시의 처부는 진양하씨 兵曹正郎 河之溟, 처조부는 檢校漢城府尹 河遊, 처외조부는 재령이씨 司宰令 李日善이며, 처외숙은 함안 산익리 茅谷村의 茅隱 李午이다.[62] 류시는 진양하씨 부인 사이에 3남 4녀를 두었다. 두 사위 許混과 許琛(1444~1505)은 재상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다.[63] 이처럼 원당리에는 예부터 사족이 많이 살고, 의관이 대대

59) 『진양지』 권1, 각리 <서면>.
60) 『진양지 권1, 각리 <원당리>.
61) 『丹城誌』, 新燈八坊考證 第四坊條 ; 『晉州柳氏族譜』(土柳系).
62) 『浩亭集(初刊本)』 卷3, 「附錄」, <晉陽府院君河公諱允濟神道碑 陰記[知製敎朴熙中]> ; 『茅隱實記』 卷2, 「附錄」, <行狀[河沃謹]>.
63) 『晉州柳氏族譜』(土柳系) ; 『晉陽河氏大同譜』(侍郎公派) ; 『성종실록』 권247, 성종

로 나왔다.[64] 이는 진주류씨 가문과 관련이 있다. 守愚堂 崔永慶(1529~1590)이 일찍이 이곳을 지나다가 마을 앞 시냇가의 정자 이름을 '萬柳'라고 이름을 지어 붙일 정도로 원당리에는 류시의 자손이 번창하였다.[65]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1585년 무렵의 원당서재의 건립이다.[66] 원당서재는 원당촌의 진주류씨 가문의 인물이 주도하여 원당촌에 세운 庠塾이지만[67] 家塾에 다름이 없었다.

이상과 같이 조정의 명월암천방의 개발은 원당리의 저평지 개간과 수전농업 발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당리에는 사족의 번성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자연촌의 형성 등 리방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2. 德川梁川防과 백곡리

덕천량천방은 개발되고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파괴되면서 다시 복구되지 못했다. 그래서 덕천량천방은 『진양지』 고적조에 편차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덕천량천방의 개발과 증축 관련 자료이다.

> 德川梁은 德川遷의 南麓에 있었다. 원래 三嘉의 生員 金澄이 쌓았던 것이다. 中太洞으로부터 개울과 골을 넘거나 건너고, 구렁과 언덕을 메우거나 깨뜨리며 돌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10餘里의 開渠를 만들어 金伊彎坪에까지 이르렀다. 뒤에 陶丘 李濟臣이 옛터를 증축해서 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急水로 인해 한 번에 파괴되어 전의 공이 모두 버려졌다.[68]

위의 자료는 선행 연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16세기 중반 진

21년 11월 10일(무자) ; 『慕齋集』 卷14, 「行狀」, <許文貞公行狀>.
64) 『진양지』 권1, 각리 <원당리>.
65) 『진양지』 권2, 亭臺 <萬柳亭>.
66) 『松亭續集』 卷3, 「附錄」, <年譜[河謙鎭]>.
67) 『松亭集』 卷4, 「記」, <元堂書齋記>.
68) 『진양지』 권4, 고적 <덕천량>.

주 덕천강의 덕천량천방 개발의 사실에 관한 것이다. 특히 그 개발을 주도한 김징과 그것을 증축한 이제신 뿐만 아니라 개거의 축조 과정과 규모 및 관개지 금이만평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16세기 중반 진주 덕천강의 천방 개발을 규명하는 데에 주요한 단서이다. 이런 점에서 자료 발굴의 의미가 적지 않다.

덕천량천방의 위치는 德川遷을 단서로 하여 규명할 수 있다. 덕천천은 남명 조식이 矢川里에 자리를 잡기 이전 선초의 기록에 나타난다. 1487년(성종 18) 9월 27일부터 지리산 유람 길에 올랐던 秋江 南孝溫(1454~1492)은 苔淵을 거쳐 '德川遷'을 따라 10여 리를 上行하여 壤堂[兩堂村]에 도착한 후 바로 矢川洞으로 들어갔다.[69] 덕천천은 덕천강 북안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위를 뚫거나 흙을 쌓아 만든 棧道에 이름을 지어 붙인 지명이며, 길이가 5~6리였다.[70] 그 덕천천의 남쪽 산기슭이라면 당연히 덕천강 남안의 산기슭을 말한다.

덕천량천방은 덕천강의 여울에 개발되었는데, 그 여울은 진주목 서면의 矢川里 絲綸洞에서 茅芳谷里의 重台洞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紫陽洑가 자리를 잡고 있는 위치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덕천량천방이 개발된 시기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덕천량천방을 축조한 삼청당 김징의 생몰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방증 자료를 통해 그 축조의 하한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방증 자료로는 김징의 활동 연대가 嘉靖年間(1522~1566)이라는 점,[71] 그가 만년에 先塋이 있는 삼가로 이주했다는 사

69) 『秋江集』 卷6, 「雜著」, <智異山日課>.

70) 『진양지』 권1, 산천 <덕천천>. 그러한 사실을 간혹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컨대 "入德川者 德川遷之謂也. 桃川則書院前之灘名 以貴宅見之則各在東西."(『浮査集』 卷3, 書 <答曺漆原次磨書>)에 대해 "'덕천으로 들어갔다 〔入德川〕 '는 것은 德川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桃川은 덕천서원 앞의 여울 이름이니, 그대의 집에서 본다면 각각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라고 번역하였는데(한국고전번역원DB, <答曺漆原次磨書>, 참고), 앞의 줄친 부분은 덕천천이 지명임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한 오역이다. "'入德川'의 덕천은 德川遷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해야 옳다.

71) 『修齋集』, <叔先祖成均生員三淸堂府君碑識【己酉】>.

실,[72] 바로 손아래 동생 汲古齋 金湛(1500~1566)의 생몰년[73] 등을 들 수 있다. 만년이 일생에서 노년에 접어든 50세를 의미한다면 삼청당 김징이 삼가로 이주한 시기는 1550년 전후일 것이다. 따라서 김징은 1540년대에 덕천량천방을 개발하였을 것이다.

김징이 천방을 개발할 수 있었던 재원은 그의 家産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74] 孤松 韓大器(1543~1611)에 의하면 김징은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擧業을 버리고 학문으로 일생을 보냈던 인물이다. 또 그 이름이 조정에 알려져 副司直에 제수되었으나 그는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만년에 선영이 있는 삼가로 가서 거주하였다. 그곳으로 이주한 김징은 향교가 凋弊하고 廟宇와 神像이 엄숙하지 못함을 보고서 집의 재화 수만을 출연하여 제사 지내는 예를 넉넉하게 할 정도로 가세가 성하였다.[75] 그가 죽자 삼가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여 향교 앞에 별도로 祠宇를 세워 향사하였다.[76]

한편 조정의 장자 조득황(1500~1545)은 딸뿐인 金達生의 사위가 되어 법물리로 이주하였다. 이는 김징의 덕천강 천방 개발의 정보·지식이 조정의 장자 조득황(1500~1545)과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나왔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조득황의 처부 김달생은 김징의 당숙이며, 뒤에 김준이 그의 후사가 되었다. 요컨대 덕천량천방은 오로지 김징이 가산을 들여 축조한 덕천강의 천방이었다.

다음으로 덕천량천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덕천량천방의 입지는 山間의 여울목이므로 강폭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옛 덕천량천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의 紫陽洑의 길이를 비교해서 그 천방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높이와 너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덕천강 여울을 막아 봇물을 가두는 데에

72) 『孤松遺集』 卷1, 「雜著」, <金氏八君子傳 幷後敍>.
73) 『大瑕齋實記』 卷1, 「行狀」, <從叔父汲古齋先生行狀>.
74) 『孤松遺集』 卷1, 「雜著」, <金氏八君子傳 幷後敍>.
75) 『孤松遺集』, <金氏八君子傳 幷後敍>.
76) 『端磎集』, <先叔祖三淸堂三嘉別廟重建記>.

쓰이는 資材가 크게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덕천량천방의 축조에는 앞의 명월암천방과 마찬가지로 나무 기둥·섶·돌·자갈 등을 이용하여 명월암천방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그 길이는 약 90m 정도였을 것이며 너비는 전혀 추정할 근거가 없지만 그 너비는 箭灘川防의 약 26.6m보다 작은 규모였을 것이며, 그 높이는 현재 자양보의 높이 2m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양지』 고적조의 덕천량조에 의하면 덕천량천방의 開渠[봇도랑]는 천방에서 덕천강 남안의 산기슭을 따라 굴착하거나 메꾸고 쌓는 등의 방식으로 개설되었다. 그 개거의 길이는 중태동에서 금이만평까지 10餘里라고 했다. 덕천량천방의 개거는 지금의 자양보 수문에서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들판까지 개설된 봇도랑의 위치와 크기 및 길이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덕천량천방은 명월암천방에 비해 관개지 입구까지 개거의 길이는 거의 비슷했으나 그 관개지 내의 개거 길이와 규모가 명월암천방에 비해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개지의 규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발에 들어간 노동력에도 그 정도의 차이만큼 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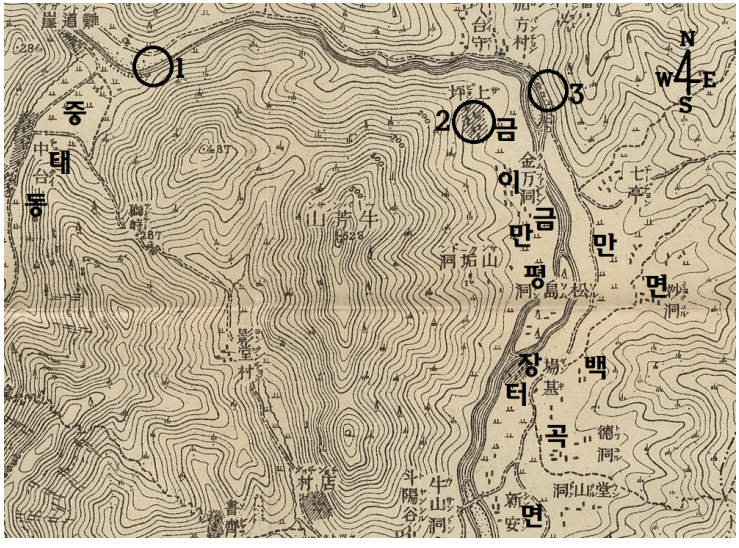
한편 김징이 1540년대에 덕천량천방을 개발함으로써 금이만평에는 수전으로 개발된 저평지가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관개의 혜택을 입지 못하거나 미개간의 저평지도 제법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이제신이 덕천량천방을 증축하려고 맘먹었던 동기일 것이다. 도구 이제신이 은거하던 도구대는 금이만평 건너편이므로 그 관개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증축의 시기는 이제신이 덕산동으로 이주한 1560년 이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582년 이전에 해당할 것이다.[77]

앞에서 언급했듯이 덕천량천방은 이제신이 1570년대 중반 무렵에 증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얼마 못가서 急水로 인해 파괴되었다. 백곡리는 원당리와 더불어 덕천강 유역의 리방 가운데 가장 일찍이 천방의 혜택을 입어 수전농업이 크게 발전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77) 『陶丘實記(附錄)』 卷2, 「附錄」, <行錄[外孫田有龍高峯]>.

덕천량천방의 관개지인 金伊彎坪은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의 들판이다. 아래 <지도 3>은 1909년에 측도한 『조선지형도』(단성)에 덕천량천방 관련 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지도 3> 덕천량천방과 개거 및 관개지 금이만평



1. 덕천량천방(자양보)	2. 금만면 소재지	3. 도구대 추정지

백곡리는 토지가 비옥하고 사족 거주의 리방이었지만 풍속은 强悍을 숭상하고 쟁투를 좋아했다.[78] 이는 사족과 민의 실태를 대비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덕천량천방의 개발로 인한 백곡리의 저평지 개간은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이만평을 중심으로 한 덕천강 유역의 저평지나 저습지를 수전으로 개간하려는 노력은 17세기 이후 지속되었다. 이를 통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백곡리의 사회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愚山 韓愉(1868~1911)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남겼다. 그는 1895년

78) 『진양지』 권1, 각리 <백곡리>.

5월에 지은 '柏谷山水圖' 서문에서 "두류산은 영남 아래 지방의 雄鎭이다. 남쪽으로 꺾인 곳에 큰 마을을 이룬 곳이 헤아릴 수 없이 심히 많은데, 第一이 德山洞이고, 第二가 柏谷坪이다."라고 했다.[79]

백곡리에서 성장한 금만면과 백곡면의 거주민들은 늦어도 19세기 후반에 덕천강의 洑[천방]로 인한 관개의 혜택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愚山 韓愉(1868~1911)는 1892년 5월 '德川齋記'에서 16세기 이전에 지명으로 정착한 덕천강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川에 '德川'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인 것은 대개 덕 있는 자들이 깃들어 쉬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한갓 봇도랑의 이익과 관개의 은혜로써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덕천이라 칭했을 뿐이겠는가."라고 하였다.[80] 덕천강의 지명은 관개의 혜택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덕천량천방의 관개 혜택을 입던 백곡리 지역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陶丘臺 아래에 上洑, 그 하류 場基 서쪽에 下洑가 축조되었다.[81] 그런데 덕천강의 상보와 하보가 결코 민들에게 관개의 혜택만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전에는 洑錢이 매겨지고, 洑任으로 都監과 監考가 있어 민들은 그것을 오히려 매우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다.[82]

그런데 19세기 말까지 덕천량천방이 있던 자리에는 洑가 다시 복구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한유의 『백곡지』에 그것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덕천량천방이 파괴되고 복구되지 못했으나 덕천강 천변의 백곡리는 수전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고 촌락이 성장하였다. 이로써 백곡리의 속방 금이만평 지역은 18세기 이후 독립된 리방으로 분화하여 金伊萬里의 本坊으로 성장하였다. 1750년 초반 편찬의 『海東地圖』와 『輿地圖書』 진주목 방리조에는 금이만리, 1832년 편찬의 『경상도읍지』(진주목읍지) 방리조에는 金萬伊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진양지』 고적조에도 金伊彎坪으로 나온다. 19세기

79) 『柏谷誌』 卷1, 柏谷 <柏谷山水圖序>.
80) 『柏谷誌』 卷2, 齋舍 <德川齋記[韓若愚]>.
81) 『柏谷誌』 卷4, <洑>.
82) 『柏谷誌』 卷4, <洑>.

중엽의 『대동지지』 진주목 방면조에는 金萬이라 했다. 1906년 금이만리는 산청군으로 이속되어 산청군 금만면(백운·태소·창촌·가방·평동), 백곡리도 산청군으로 이속되어 백곡면(상동·중동·하동)으로 편제되었다.[83]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 수전농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백곡리에 속한 금이만평 내의 자연촌은 조선 후기에 독립된 리방으로 성장하여 金伊萬里로 분화하였으며, 그 중심 마을은 뒤에 금만면의 소재지가 되었다.

16세기 백곡리 금이만평의 저평지에는 천방의 관개에 의한 수전농업의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배후 산지의 곡간수를 이용한 수전 농법이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8세기 이후 금이만평에는 독립된 리방인 金伊萬里의 성장과 같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사족을 비롯한 거주민의 구성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조선 초기 이후 백곡리에 세거하던 전주최씨 가문의 崔琦弼(1562~1593)의 아버지 崔涎은 백곡리에서 모방곡리로 이주하였다.[84] 이후 백곡리 지역에는 居昌愼氏·驪陽陳氏·晉陽姜氏·文化柳氏·慶州金氏 가문이 거주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모두 없어졌다. 조선 후기 백곡리의 주요 사족 가문은 驪興閔氏·草溪鄭氏·晉陽河氏·海州鄭氏·載寧李氏·淸州韓氏인데, 이 가운데 가장 번성한 두 가문은 여흥민씨와 초계정씨 가문이었다. 여흥민씨는 閔愿이 16세기 말기 무렵에 백곡리로 이주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그의 자손은 4~5십 인에 이르렀다. 초계정씨는 남명 조식의 매제 松潭 鄭白水의 아우 鄭白渠의 5대손 鄭八英이 17세기 무렵에 초계로부터 진주 백곡리로 이주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그의 자손은 7~8십 인에 이르렀다.[85]

83) 朝鮮總督府 編,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朝鮮總督部(太學社影印本), 1912, 747쪽.

84) 『忠烈實錄』, 「錄」, <崔兵曹參議公實錄> ; 『立齋集』 卷38, 「碣銘」, <晉州判官贈兵曹參議茅山崔公墓碣銘 並序>.

85) 『柏谷誌』 卷1, 姓氏條.

Ⅳ. 맺음말

이 연구는 16세기 향촌사회에서 재지기반을 확장하던 사림파들이 천방 개발을 통해 수전을 확장하던 역사적 사실과 16세기 진주목 서면 덕천강 유역의 사족·리방의 성장·수전농업의 실태를 앞으로 좀 더 천착할 수 있는 연구적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덕천강의 明月巖川防과 德川梁川防은 여울[灘] 지점을 수리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多會灘과 德川梁은 천방 축조에서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관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갖춘 여울이었다. 趙珥(?~1534)이 국가의 간여 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명월암천방을 개발할 수 있었던 지역적 배경을 주목하였다. 진주지역에는 호정 하륜의 후원을 받은 진주의 父老들이 주도하여 1413년에 저습지 개간을 위한 남강의 방천이 축조되었으며, 남강의 하천수를 관개수로 활용하기 위한 水車의 제조와 보급이 행해졌다. 또한 진주지역에는 15세기 중엽에 관개지 97결의 대규모 제언인 금산지가 축조되었으며, 천방 개발을 주장한 姜叔卿이 거주하고 있었다.

조정·金澄·李濟臣은 덕천강의 천방 개발과 증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조정은 趙之瑞(1454~1504)의 장자이다. 조정의 고종사촌은 南冥 曺植의 아버지 曺彦亨(1469~1526)이다. 조정의 장자 趙得璜(1500~1545)의 처부인 단성현 法勿里의 商山金氏 金達生은 김징의 당숙이다. 그러므로 조득황의 妻와 김징은 재종간이다. 李濟臣(1510~1582)은 조득황의 外再從弟인 조식의 문인이다. 김징과 金湛(1500~1566) 형제는 이제신과 교유가 있었다. 이제신은 스승 조식을 따라 1560년 직후 의령현 신반에서 덕산동으로 옮겼다가 금이만평의 건너편 陶丘에 집을 짓고 정착하였다. 따라서 조정과 김징 및 이제신은 경상우도의 유력한 사족의 일원으로서 혼맥과 학맥을 통해 직·간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조정에 의한 명월암천방 개발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망 구실을 하여 김징에 의한 덕천량천방의 개발과 이제신에 의한 그것의 증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조정이 三壯洞에서 元堂村으로 이주한 이후 1510년 무렵에 명월암천방 개발에 나섰던 동기는 원당촌의 저평지를 개간하여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재지 기반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조정은 먼저 덕천강의 河蝕崖인 明月庵을 따라 굴착하여 開渠를 개설하고 다회탄을 막아 作洑하였다. 명월암천방의 개거는 천방의 수문에서 약 3km 지점의 水桶목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원당들의 관개수 공급에 쓰였다. 명월암천방의 관개지 면적은 정확히 단정할 수 없으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원당들은 1백섬지기의 수전농업 지대로 진전되었는데, 천방이 개발될 당시 그 면적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명월암천방의 개발은 원당리의 저평지 개간과 수전농업 발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원당리에는 사족의 번성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자연촌의 형성 등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는 덕천량천방은 1540년대 김징에 의해 개발된 덕천강의 천방이었다. 김징은 中太洞으로부터 금이만평까지 덕천강 남안의 산기슭을 굴착하여 10餘里 길이의 개거를 개설하였다. 이제신은 금이만평의 저평지를 수전으로 더 개간하기 위해 1570년대에 그것을 증축하였으나 그 천방은 急水로 인해 파괴되었다. 따라서 백곡리의 금이만평의 저평지에는 하천 관개수에 의한 수전농업의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배후 산지의 곡간수를 이용한 수전 농법이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업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로써 금이만평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촌락이 성장하여 18세기 이후 독립된 리방인 金伊萬里로 발전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高麗史』,『高麗史節要』,『太宗實錄』,『世宗實錄』,『文宗實錄』,『端宗實錄』,
『世祖實錄』,『成宗實錄』,『中宗實錄』,『經國大典』,『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輿地圖書』,『海東地圖』,『慶尙道邑誌』,『丹城誌[雲牕誌]』,
『丹邱姓苑』,『丹城鄕案』,『丹城蓮桂案』,『丹邱姓苑』,『晋陽誌』,『晋陽續誌』,
『東文選』,『孤松遺集』(韓大器),『龜巖集』(李楨),『金羅傳信錄』(趙任道),
『記言』(許穆),『記言別集』(許穆),『南冥集(丁酉本)』(曺植),『南冥集』(曺植),
『端磎集』(金麟燮),『大瑕齋實記』(金景謹),『陶丘實記』(李濟臣),
『丹洲處士實紀』(河忭),『晩求集』(李種杞),『茅隱實記』(李午),『勿川集』(金鎭祜),
『柏谷誌』(韓愉),『白軒集』(李景奭),『鳳岡集』(趙璉),『浮査集』(成汝信),
『慕齋集』(金安國),『私淑齋集』(姜希孟),『泗川李氏文集』(泗川李氏),
『松亭集』(河受一),『松亭續集』(河受一),『修齋集』(金在植),『述菴遺集』(金學洙),
『陽村集』(權近),『林園十六志』(徐有榘),『立齋集』(鄭宗魯),『秋江集』(南孝溫),
『台溪集』(河溍),『浩亭集(初刊本)』(河崙),『浩亭集』(河崙),『忠烈實錄』(鄭德善),
『泗川李氏文集』,『德川師友淵源錄』,『林川趙氏世譜』,『晉州柳氏族譜』(土柳系),
『晉陽河氏大同譜』(侍郎公派)
「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소장 국립진주박물관)

朝鮮總督府 編,『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朝鮮總督部(太學社影印本), 1912
조선총독부 편, <丹城(順天一號)>『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3.
조선총독부 편, <昆陽(順天二號)>『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3.
조선총독부 편, <丹城(順天一號)>『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조선총독부 편, <晉州(馬山十三號)>『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조선총독부 편, <辰橋(順天二號)>『朝鮮地形圖』, 육지측량부, 1918.

박용국,「산청 단계리의 역사 변천과 의미」,『남명학』48,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5, 1~41쪽.
박용국,「고려말·조선초 진주지역 '父老'의 존재와 성격」,『영남학』7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257~287쪽.

김성우,『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 : 영남농법과 한국형 지역개발』, 태학사, 2012.
박용국,『지리산 단속사』, 보고사, 2010.
李泰鎭,『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이태진,『증보판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Cheonbang development of Jinju Deokcheon River Basin Sajok in the 16th Century

Park, Yong-guk

Myeongwolamcheonbang and Deokcheonliangcheonbang were irrigation facilities developed in the early and mid-16th century. The two cheonbangs were built in the rapids of the Deokcheon River, which requires less labor but can irrigate more areas. As for the regional background, the construction of the embankment of the Namgang River in 1413 and the manufacture and supply of Sucha are noteworthy. In addition, knowledge about the construction of Geumsanji, a large-scale reservoir in the mid-15th century, and the development of cheonbang in Kang Sug-gyeong cannot be left out.

Jo Jeong·Kim Jing(?~?)·Lee Je-sin(1510~1582) led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heonbang in the Deokcheon River. Jo Jeong is Jo Ji-seo's eldest son. Jo Jeong's father's older sister's son is Jo Eon-hyeong, Jo Sig's father. The wife of Jo Deug-hwang, the eldest son of Jo Jeong, and Kim Jing are 6th cousins. The Kim Jing and Kim Dam brothers hav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Jo Sig's disciple Lee Je-shin. Jo Jeong, Kim Jing, and Lee Je-sin are members of the influential Sajok of Gyongsang-udo. They were building a direct or indirect network through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of their teachers.

Around 1510, Jo Jeong developed the Cheonbang of the Deokcheon River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economic base by developing the lowlands of Wondangchon. Jo Jeong first excavated along the

Myeongwolam eroded by the Deokcheon River to create an irrigation ditch of 600m and blocked the Dahoetan to store water. The Irrigation ditch of myeongwolamcheonbang was divided into two branches at Sutongmog, about 3km from cheonbang. Both Irrigation ditches were used to supply irrigation water to the lowlands of Wondangchon. The size of the irrigation area is unknown, but it developed into the irrigation field of Baegseomjigi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the cheonbang marked a new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rice farming and the reclamation of lowlands in Wondang-li. As a result, social changes such as the prosperity of Sajok and the formation of new villages occurred in Wondang-li.

Deokcheonliangcheonbang was developed by Kim Jing in the 1540s. Kim Jing made the Irrigation ditch by excavating the southern foothills of the Deokcheon River from Jungtaedong to Geumimanpyeong. The irrigation ditch was 4km long. Later, Lee Je-sin extended it, but it was destroyed by a very fast river. Therefore, rapid development of irrigation farming by river irrigation did not occur in the lowlands of Geumimanpyeong in Baeggog-li. However, paddy farming using water from the valley in the back mountain area was slowly but continuously expanded. As a result, social changes took place in Geumimanpyeong.

keywords :
Jinju, Deokcheon River, Sajok, Cheonbang, Myeongwolamcheonbang, Deokcheonliangcheonbang, Jo Jeong, Kim Jing, Lee Je-sin, Wondang-li, Baeggog-li